

GS칼텍스, 산업간 공존... 오픈 이노베이션 통해 안전 혁신

사내프로그램 SBT 통해 업무혁신 '질소분위기 촉매 교체' 로봇 투입 작업자 질식 사고위험 현저히 낮춰

GS칼텍스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안전한 공장 만들기에 나선다.

GS칼텍스는 국내최초로 위험성이 높은 '질소분위기 촉매 교체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유·화학 시설 정비 작업 등에서 활용되는 질소분위기 작업은 화재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질소를 투입하고 작업하는 것으로 작업자가 질식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GS칼텍스는 국내 로봇 전문 업체와 협업을 통해 가상 작업공간을 만들고 모의 테스트를 거친 후 실제 현장의 설비에 로봇을 투입하는 질소분위기 촉매 교체작업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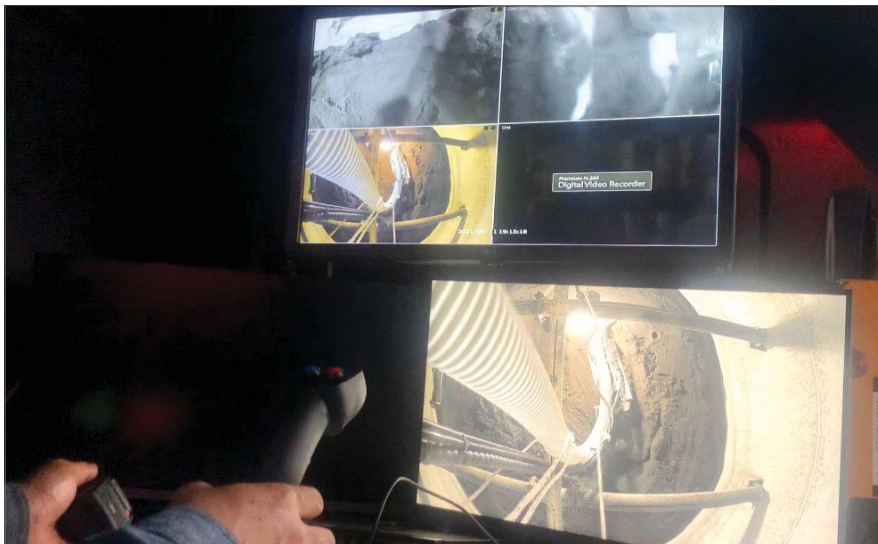
이번 로봇을 활용한 교체 작업을 통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 사장.

해 작업자 질식 사고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질식재해로 인한 재해자는 65명, 이중 31명이 사망하여 질식재해 사망률은 47.7% 수준으로 전체 산업



로봇을 활용한 질소분위기 촉매 교체작업

재해 사망률 1.5%보다 30배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 GS칼텍스는 로봇활용으로 질소분위기 작업을 위한 위험성 검토, 작업 시간 단축 등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유·화학 관

련 시설에 추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로봇을 활용한 질소분위기 촉매 교체작업은 GS칼텍스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사내프로그램인 SBT(Self-designed Business Trip)에서 나왔

다. SBT 프로그램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구성원이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참여할 그룹을 구성하면 내부 심사를 통해 선발된 그룹들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컨퍼런스, 프로토타입 제작, 파일럿 테스트 등 다양한 학습과 시도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허세홍 사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는 산업간 경계를 넘어서 공존을 모색하는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이 필수적이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을 수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외부와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조했다.

이어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디지털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며 "전사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머티리얼즈, 실리콘 음극재 공장 짓는다

그룹14와 이달 중 합작사 설립 차세대 배터리소재 8500억 투자

SK머티리얼즈가 차세대 배터리 소재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한다.

SK머티리얼즈가 그룹14와 만든 합작사는 14일 경상북도 및 상주시와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실리콘음극재 및 원재료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합작사는 SK머티리얼즈가 그룹14 테크놀로지과 9월 중으로 설립할 회사로, 각각 지분 75%, 25%를 보유한다. 그룹14는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실

리콘 음극재 관련 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배터리 소재 회사다.

합작사는 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부지에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 소재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10월에 제1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상업 생산을 시작하며 추가 증설까지 계획 중이다.

투자 규모는 8500억원에 달한다. 우선 5500억원을 투입한 후, 추후 증설에 맞춰 실리콘 음극재 주원료인 실란을 생산하는 공장 설립 및 부지 매입에 30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실리콘 음극재'는 현재 전기차용 배터리에 주로 사용되는 '흑연 음극재'보다 주행 거리를 늘리고 충전시간도 단축하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가볍고 부피가 작아 모바일 IT 기기나 드론 등 소형 항공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합작사가 만든 제품은 부피 팽창으로 인한 수명 감소 문제를 해결해 충전과 방전 용량 및 효율,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미 30여개 고객사로부터 평가를 진행중으로, 2022년 이후 양산 물량 공급을 논의 중이다.

/김재용 기자 juk@

1000만원대 경차 SUV '캐스퍼' 사전예약

현대차, 온라인 얼리버드 예약 개성·감성 추구 전 세대 타깃

현대자동차의 신규 엔트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가 14일부터 온라인 얼리버드 예약(사전계약)에 돌입한다.

캐스퍼는 현대차가 2002년 아토스 단종 이후 19년 만에 선보이는 경차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탄생한 모델이다. 개성과 짧은 감성을 추구하는 전 세대를 타겟으로 디자인된 만큼 캐스퍼는 공개와 함께 주목받았다. 사전계약에 대한 업계 관심도 집중되는 상황이다.

캐스퍼는 현대차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새로운 차급 '엔트리 SUV'로 ▲개성을 살린 내·외장 디자인과 컬러 ▲용도에 따라 실내 공간 조절이 가능한 시트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과 앞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 기본 적용으로 안전성 확보 ▲운전자 중심의 편의 사양 탑재 등이 특징이다.

캐스퍼는 1·2열 전 좌석에 폴딩(등받이를 앞으로 접는 것), 슬라이딩(시트를 앞·뒤로 움직이는 것), 리클라이닝(등받이를 앞·뒤로 기울이는 것) 기능이 적용돼 높은 공간 활용성을 자랑한다.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운전석 시트가 앞으로 완전히 접히는 풀 폴딩(Full-fold ing) 시트를 적용해 실내 공간 활용성을 확장했다.

2열 시트를 최대 160mm 앞뒤로 이동할 수 있고 최대 39도로 젖힐 수 있어 후석 탑승자들까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아울러 각 시트별로 풀 폴딩이 가능해 후석 시트를 전방으로 슬라이딩 시 실내 길이 최대 2059mm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탑승자들은 다양한 크기의 물품 적재는 물론 레저, 아웃도어 활동 등 개인의 취향과 상황에 맞는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현대차는 캐스퍼를 가솔린 1.0엔진으로 운영하며 가솔린 1.0 터보 엔진을



현대차 엔트리 SUV '캐스퍼'.

탑재한 터보 모델은 '캐스퍼 액티브'라는 선택 사양으로 운영한다. 가솔린 1.0은 최고 출력 76PS(마력), 최대 토크 9.7kgf·m, 복합연비 14.3km/l를 확보했고 가솔린 1.0 터보는 100PS, 최대 토크 17.5kgf·m, 복합연비 12.8km/l의 동력 성능을 갖췄다.

캐스퍼의 판매가격은 기본 모델 ▲스마트 1385만원 ▲모던 1590만원 ▲인스퍼레이션 1870만원이다.

얼리버드 예약은 기존의 영업망이 아닌 웹사이트 '캐스퍼 온라인'에서 진행되며, 본격적인 D2C(고객에 직접 판매, Direct to Consumer) 판매는 29일 디지털 프리미어(CASPER Premiere)와 함께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캐스퍼 온라인 판매는 코로나 19 이후 가속화된 언택트·디지털 트렌드를 반영해 국내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D2C 방식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현대차 관계자는 "캐스퍼는 '엔트리 SUV'로써 디자인, 공간성, 안전성과 경제성 등 어느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소비자에게 최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현대차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직접 판매는 고객들의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화상회의 최적화 웹캠 모니터 출시

삼성전자가 화상회의를 위한 모니터를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14일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 '웹캠 모니터'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웹캠 모니터는 웹캠 카메라와 마이크를 디스플레이 상단에 내장한 제품이다. 스피커도 같이 탑재했다. 코로나19로 대폭 늘어난 화상 회의를 위해 만들어졌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팝업 형태로 만들어 쓰지 않을 때는 접어들 수 있다. 보안성을 강화하고 공간을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게 한 것.

화질도 수준급이다. 화면 크기는 24형으로, 풀HD 해상도에 178도 광시야 각 패널을 적용했다. 안면 인식 보안 기능도 탑재됐다. '윈도우 헬로' 인증을 받은 200만 화소 적외선 카메라로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게 했다.

/김재용 기자

삼성중, 생산 효율화 위해 中영과법인 철수

설비 노후화로 생산성 저하 해외 사업장 효율개선 추진

삼성중공업이 미래 친환경 신기술 개발 투자 재원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삼성중공업은 설비 노후화로 생산 효율성이 저하된 중국 내 생산 법인인 '영과 유한공사'를 철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 자산은 중국 정부가 인수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잔여 공정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초 인수 인계 절차를 마무리 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중국 영과 법인은 1995년 설립해 26년간 거제조선소에 선박 블록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설비 노후화로 인한 생산 효율 저하에 따라 해외 사업장 운영 효율 개선 전략의 일환으로 철수를 결정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국 내 2개 사업장에서 이뤄진 블록 제작은 향후 설비 합리화가 갖춰져 생산성이 높은 영성 법인으로 일원화한다"며 "집중 육성해 효율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전경.

삼성중공업은 과거 호황기 선박 건조 물량 증가에 대응하고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1995년 중국 거제성 영과시, 2006년에는 산둥성 영성시에 선박 블록 생산 법인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 지난해 기준 생산량은 각각 15만톤, 20만톤 규모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미래 친환경 신기술 개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본확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거제조선소 인근 사원 아파트단지 등 대규모 비생산 자산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자구계획 이행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양성운 기자